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7.03.08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명철, 박용욱, 전병갑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사랑



광주건축사회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회원 200여명 참석

광주건축사회, 2017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 개최

전남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진행

지난 3월 7일 여수 디오션리조트 3층 벨라스타홀에서...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나주시와 건축 무료상담 협약 체결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오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염암서...

Editorial

구멍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앞서 윤리교육도 진행

지난 3월 14일 전주 완선구 오펠리스 컨벤션홀에서 회원 160여명 참석

전북건축사회, 전주비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라북도, 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반' 출범

건축 분야 등 9개 분야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169명으로 구성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조성 신축공사 설계공모

광주건축사회 청년분과위원장과의 만남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추대

세상사는 느낌

양념반, 후라이드반

공덕 693



Editorial

구멍

우리 몸에는 모두 아홉 개의 구멍이 나있다. 물론 여자는 좀 다르다. 이른바 새 생명이 잉태 되는 산도(産道)까지 합치면 모두 열 개다. 아홉과 열의 차이....., 이른바 음과 양의 경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사일생(九死一生), 구중궁궐(九重宮闕), 구중심처(九重深處), 또 구중구포(九蒸九曝)와 구미호(九尾狐)..... 모두 아홉이라는 숫자가 주도하고 있다. 많고, 깊고, 또 여러 차례라는 뜻이다.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나 보다. 아무리 짙어 봐도 열(拾)에서 하나가 모자란 상태다.

사실 어느 동물이나 수컷들은 힘이 세고 사납긴 하지만,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는 못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들은 그저 구단(九段)일 뿐이다. 바둑 구단, 정치 구단, 노름 구단..... 물론 그게 다 수컷들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어째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열(拾)"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른바 "열어(開)"갠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구멍, 즉 지표면을 열고 땅 속 공간인 무덤(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다들 "자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구멍에서 어느 날 불쑥 태어나서는, "집"이라고 하는 좀 더 큰 구멍으로 자리를 옮겨 한 평생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 또 "땅"이라고 하는 한 평(坪) 구멍 속으로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가 된다. 구멍만 찾아 여기저기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공간"의 의미가 새삼스러워진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공간을 창출하는 게 바로 우리 건축이다. 건축은 조각과 달리 형태를 빚으면서도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된다. 갖은 물상마다 마치 생명을 불어넣기라도 하듯 일일이 구멍을 뚫고, 또 그 구멍끼리 연결을 꾀하면서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다가 마침내 저 광활한 우주까지 그 "공간의 의미"를 확대해내는 일, 사실 그게 우리 건축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난 세월, 다들 저마다의 작디작은 구멍 속으로만 웅크려대느라 술한 무지렁이로만 취급받던 우리들이, 그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서자 광장이 열렸고, 마침내 그 공간에서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세상이 요동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새봄부터 구멍으로 시작한 얘기가 다소 민망해졌지만, 작은 구멍 하나에서 저 널따란 광장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 건축의 의미가 더 새삼스레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 삼월이다.

최상철 논설위원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THE BOX BUILDING

이순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66-2번지 / 대지면적 : 235.70㎡ / 건축면적 : 141.21㎡ / 연면적 : 299.88㎡ / 건폐율 : 59.91% / 용적률 : 127.23%
층수 : 지상 4층 / 외부재료 : T42 로이삼중유리, 송판노출콘크리트, 코르텐강판



광주건축사회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회원 200여명 참석

지난 3월 7일 신양파크에서... 공무원에 감사장 수여, 신입이사·대의원 선출 등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3월 7일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의회 이은방 의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 UIA2017서울세계건축대회 석정훈 조직위원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 광주전남건축가회 박홍근 회장, 광주전남건축학회 길종원 부회장 등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정명철 회장의 개회사, 조충기 회장의 격려사, 이은방 의장의 축사 등 기념행사에 이어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 7인에 대해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동구청 건축과 이종현 과장을 비롯하여 북구청 건축과 최해중 과장,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박홍철 주무관, 서구청 건축과 김정식 주무관, 남구청 건축과 장용규 주무관, 북구청 건축과 최귀한 주무관, 광산구청 건축허가과 전소라 주무관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회 임원임기를 만료한 이사와 감사, 공로 회원에 대한 공로상 수여식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이날 42년간 건축사회원으로 사회 발전과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천도길 건축사(신일 건축사사무소)의 퇴직기념 공로상 수여식이 진행되어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명철 회장은 “올해 정기총회는 우리 광주건축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30년을 시작하는 자리이다”며 “그간 이번 수상자와 같이 많은 분들의 공로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입 감사에 문강욱 건축사((주)승 건축사사무소)와 신입 이사에 김선영 건축사(일우 건축사사무소)를 선출했다.

이기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임채열 건축사(나성 건축사사무소), 정관성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한상훈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휴) 등 총 6인의 임원을 선출했으며, 대의원에는 김희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김선영 건축사(일우 건축사사무소), 문강욱 건축사((주)승 건축사사무소), 윤양현 건축사(이조 건축사사무소), 김권수 건축사((주)보림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건축사(동원 건축사사무소), 장정수 건축사((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상채 건축사(초석 건축사사무소) 등 총 9인의 신입 대의원을 선출했다.

본지 박홍근 초대 편집인,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에 선출

지난 2월 27일 동구 금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건축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지난 2월 27일 동구 금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입회장으로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를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에는 수석 부회장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를, 부회장에 건축사사무소 시형의 김강동 건축사를 선임했다.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초대 편집인을 역임하기도 한 박홍근 신입회장은 현재 광주일보 은펜 칼럼리스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지원포럼 위원, 전라남도교육청 재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나무심는건축인 등 시민단체에서 도시·건축 전문가로 주요 역할도 하고 있다. 칼럼집인 '나 하나 물들어'라는 책을 통해 공공건축과 도시, 도시정책과 문화행정, 아시아문화전당과 재생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전남건축가회는 건축문화운동, 건축학교, 건축투어, 건축 관련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과 시민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건축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공유하며, 살고 싶은 도시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2017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 개최

지난 2월 16일 동구 금수장에서... 참석 건축사에 협회 업무 소개 및 등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16일 광주 동구 금수장에서 2017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회장단 및 청년·여성분과위원장, 신입회원, 광주지역 활동건축사 등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정명철 회장이 직접 협회 업무 소개와 앞으로의 활동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후배 건축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면, 선배 건축사들이 자문하는 형식의 토론회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신입건축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초보 건축사로서 협회 회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입건축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개선되는데 선배 건축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전임임원과 신입임원 하례회 개최

지난 3월 13일 동구 금수장에서... 이사회의 열고 부회장 2인도 선임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13일 동구 금수장에서 전임임원과 신입임원의 하례회를 개최했다.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신입 임원이 선출되어 개최한 이번 자리에서, 제3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부회장 2인에 일우 건축사사무소 김선영 건축사와 이조 건축사사무소 윤양현 건축사를 선임했다.

두 부회장은 2018년 3월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운용 및 건축사회 소속 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7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35차 광주건축사신문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입 부이사장에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건축사가 선출됐다.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 정호령 대표는 - 제49회 세무사 시험 합격, 광주지방국세청 22년 근무
- 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위촉
- 광주광역시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위촉
- 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 현재 세무법인 서정은 상무점 외 5개 지점 운영 중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일곡동, 광산빌딩 5층)
Tel. 062-575-3105-7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정선 건축사 / LAN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31-1
- **퇴회**
- 김송준 건축사 / 세오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정호림 건축사 / (주)동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송도로 279, 3층
- 강철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코 / 광주 서구 운천로 153, 2층
- 백철우 건축사 / 디바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대남대로 473-2
- 김태욱 건축사 / 아름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시청로 97 308호
- 이영진 건축사 / 창대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16, 413호(치평동)
- 정기현 건축사 /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17번길 2, 501호
- **부고**
- 박춘호 건축사 / 건승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2월 18일(토)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2월 26일(일)
- 신문기 건축사 / (주)현진 종합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08일(수)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79-1번지 / 대지면적 : 931.00㎡ / 건축면적 : 334.53㎡ / 연면적 : 1,415.33㎡ / 건폐율 : 35.93% / 용적률 : 79.8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MOUNTAIN·TREES·ROCK·HUMAN·SPACE

선기택 건축사 / (주)HS그룹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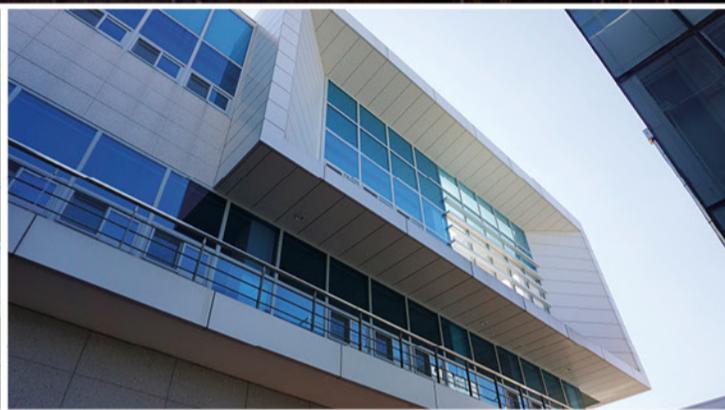


농업기술원 식품가공센터

김미영 건축사 /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126,106㎡ / 건축면적 : 15,720.91㎡ / 연면적 : 24,639.55㎡ / 건폐율 : 12.47% / 용적률 : 17.71%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층수 : 지상 3층



전남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진행

지난 3월 7일 여수 디오션리조트 3층 벨라스타홀에서... 회원 150여명 참석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묵)는 지난 3월 7일 여수 디오션리조트 3층 벨라스타홀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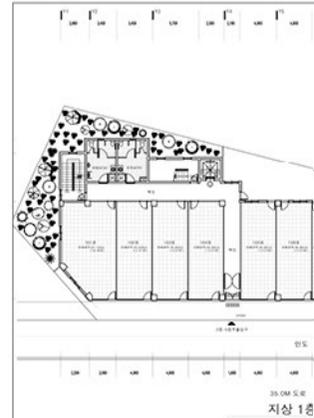


도시국 김정선 국장,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석정훈 조직위원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함께 했다.

박용묵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충기 회장의 격려사와 전라남도 지사의 축사(대독 김정선 국장),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석정훈 조직위원장의 안내사 및 관련 홍보설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유공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졌는데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유영광 사무관을 비롯해 여수시 허가민원과 한태광 주무관, 순천시 허가민원과 백철순 주무관, 목포시 건축행정과 김만재 주무관, 광양시 허가과 양미영 주무관, 장흥군 열린민원과 이영철 사무관 등 총 6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기념행사 종료 후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6회 계연도 결산감사 보고, 총 4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부의안건 심의 중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감사 1인에 장세윤 건축사(이래



MIDAS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마이다스아이티에서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주|마이다스아이티
전화문의 1577-7618
www.midasarchi.com

건축사사무소)와 이사 2인에 조연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조), 김정 건축사(대진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되었고,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윤순하 건축사(대하 건축사사무소), 서계원 건축사(우리건축사사무소 서건축), 김강룡 건축사(유피 건축사사무소), 배종수 건축사(한려 건축사사무소), 장진영 건축사(주)디딤 건축사사무소, 노기송 건축사(건축사사무소 WITH) 등 총 6인을 선출하고, 남은 대의원 1인 선출은 추후 이사회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올해부터 해남(회장 정용재 건축사/태진 건축사사무소), 화순(회장 범정 건축사/범 건축사사무소), 장성(회장 최성수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지역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협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나주시와 건축 무료상담 협약 체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2~6시 나주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진행



전라남도 나주지역건축사회(회장 최세호)는 지난 2월 16일 나주시청 1층 소회의실에서 나주시와 건축 무료 상담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 나주시청 시민봉사과에서 건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운영내용은 나주지역건축사회 건축사와 나주시 건축허가과 직원이 시민들에게 건축허가 가능여부, 토지이용의 극대화 방법,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 상담, 각종 건축 관련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4월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상담실을 나주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오는 4월 6일부터 9일 까지 개막서...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미래 건강주거 한옥 4.0 주제로



올해로 6회를 맞은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신한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옥으로 소통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과 영암군이 주최하는 이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미래 건강주거 한옥 4.0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특히 신한옥 체험, 집품공예체험, 도자기풍경만들기 체험, 막새기와 만들기체험, 목공예(DIY) 등 이전 박람회에 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또한 전시행사로 주제관과 한옥 건축/자재관, 한옥 인테리어관, 전통목조 선박과 패시브하우스 전시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건축사회 주관으로 4월 8일 오후 2시부터 한옥건축박람회 장 학술동 세미나실에서 '건축인 포럼'이 진행되며, 이에 앞서 4월 7일 오후 2시부터 동장소에서 '좋은집 짓기' 특별강연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의사 김오곤 씨, 영화감독 임권택 씨,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배우 임현식 씨 등이 강사로 나서는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와 전통혼례 가례 공연,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전통놀이마당, 야생화 분재전시, 전통차 체험 등도 열릴 계획이다.

한편, 개막식은 4월 6일 오후 3시부터 행사마당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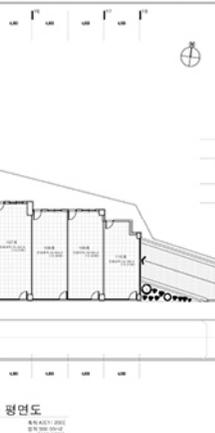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이선경 건축사 / 이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1길 8-10, 2층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50-13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943㎡ / 건축면적: 560.55㎡ / 연면적: 3,806.57㎡ / 건폐율: 59.44% / 용적률: 328.42%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근린생활시설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금호동 근린생활시설

최봉후 건축사 / 성우 건축사사무소



공덕 693

장영삼 건축사 / 건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693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 1,418.00㎡ / 건축면적 : 166.32㎡ / 연면적 : 302.39㎡ / 건폐율 : 11.73% / 용적률 : 16.8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단독주택 /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외부재료 : 노출콘크리트, 한식기와쌓기, 전벽돌쌓기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앞서 윤리교육도 진행

지난 3월 14일 전주 완산구 오펜리스 컨벤션홀에서... 회원 170여명 참석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3월 14일 전주 완산구 오펜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안길전 이사와 국원식 이사, UIA2017서울세계건축대회 석정훈 조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문창호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 했다.

먼저 전병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내의 모든 기관, 단체와의 상생과 소통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어 내외빈 축사와 도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회원에 대한 표창, 신입회원 소개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석정훈 조직위원장의 안내사 및 관련 홍보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표창장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공로상에 김정태 건축사(김정태 건축사사무소)가 수여했으며,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에는 강문수 건축사(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와 김상수 건축사(한솔 건축사

사무소), 김은선 건축사(신도시 건축사사무소)가, 전라북도교육 교육감 표창에는 이원형 건축사((유)참종합 건축사사무소)와 임대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보원)가 수여 했다.

기념행사 종료 후 본회의에서 총 3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부의안건 심의 중 감사·이사·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감사 1인에 정태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화산)를 선출, 이사 9명 및 대의원 11명은 전병갑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석정훈 회장을 감사로 초빙하여 ‘건축사 윤리’라는 주제로 건축사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건축사회, 전주비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2월 10일 비전대 회의실에서... 건축전문인력 공동양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는 지난 2월 10일 사회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전대 건축과 내에 전북건축사회 협약반이 개설되고 두 기관은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편성, 강의, 현장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구독료입금계좌
• 하단광고 : 350,000원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하단1/2광고 : 200,000원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이 자리에서 전북건축사회는 협약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10명에 대해 채용을 약속했으며, 우수한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특별반 운영을 위해 최선의 인적, 물적 협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전병갑 회장과 한영수 총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비전대 건축과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도내 건축 관련 산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 산업체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해 우수 인재를 길러 나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반' 출범

건축 분야 등 9개 분야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169명으로 구성



전라북도는 지난 2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건축사, 민간전문가 등 약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점검 기동반' 발대식을 가졌다.

민관합동점검 기동반은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예찰 등 9개 분야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련 대학생, 민간예찰단 등 169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주요임무는 지역 내 재난위험요소 및 안전사각지대 등 발굴, 안전점검 실시 등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동일 유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안전관리대상 시설 12,662건 중 15%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 내 예찰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시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 기동반' 운영성과를 통해 시·군·

절별 등 지속적 운영여부를 강구하여 전라북도 안전의 파수꾼으로 양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건축사회,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전주 오펜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전북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전주 오펜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 안건으로는 총 5개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201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2017년도 회비수납 기준(안) 심의 승인의 건, 회칙 개정(안) 심의 승인의 건, 기타사항 등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전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회비수납 기준(안) 심의 승인의 건과, 회칙 개정(안) 심의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심의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 '건축행정 건실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전라북도 임실군이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광역 17개, 기초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문성, 개선 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임실군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 위반건축물 관리, 건축민원 감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김성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레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5(조촌동)
- 신명희 건축사 / 유리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1-2(삼례리)

• 퇴회

- 한용목 건축사 / G1종합 건축사사무소

• 변경(상호 및 소재지)

- 박주성 건축사 / 대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69(평화동2가)

• 변경(소재지)

- 김병권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67(영등동)
- 손울희 건축사 / 휘경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요촌북로 59(요촌동)
- 이용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6길 16-11(덕진동2가)
- 박해진 건축사 / ON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3길 25(평화동2가)
- 부고
- 오신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람설계 / 빙부상 - 02월 08일(수)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12-7 / 대지면적 : 996㎡ / 건축면적 : 129.72㎡ / 연면적 : 202.52㎡ / 건폐율 : 13.0241% / 용적률 : 20.333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원기리 주택

박명호 건축사 / 다오 건축사사무소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조성 신축공사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산업단지 내 전남대학교 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 수요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모델을 수행하여 고급인력 확보,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하고자 함

심사위원 : 이효원, 정주성, 김경민, 이상훈, 이재홍, 김정규, 유기표, 이동은, 김환용

-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조성사업』 가구번호 C1, 획지 4번(복합시설용지)
- 대지면적 : 4,074㎡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 면 적 : 9,350㎡ (-3%이내 조정가능)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연구소)
- 동 수 : 2동(기업연구관, 융합캠퍼스관)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우수작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당선작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양병범 건축사



우수작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 길종일 건축사



“1970년생 이후 건축사들의 모임 활성화 시켜, 청년건축사들이 협회 사업에 관심 갖고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것”_ 광주건축사회 청년분과위원장과의 만남

광주건축사회는 만45세 이하 건축사들을 청년건축사로 구분하고 별도의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젊은 건축사들이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의견을 원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3월 2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르 건축사사무소 김도석 건축사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회사를 가려고 면접을 보고 있던 중 생각과는 달리 건설회사에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친구의 권유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축사사무소 직원분들 중 야간에 대학을 다니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 저에게도 학업에 정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광주대학교를 야간으로 다니며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여, 건축 관련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다가 운 좋게 한 번에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 바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별도의 거창한 건축철학은 없습니다만, 건축에 대해 항상 꿈을 꿴왔습니다. 현실은 바닥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꾸며, 제 스스로에게 '꿈꾸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말자'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예전에 큰 건축물이나 훌륭한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정말 조그마한 건축물을 성심을 다해 설계를 했는데, 건축주분들이 작게나마 감사함을 표했을 때, 자랑스럽기 보다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울 때는 언론을 통해 건축사가 불법을 자행하여 지탄을 받는 뉴스가 보도됐을 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주위에서 저에게 '너는 괜찮냐'하는 위로의 말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건축인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건축가인 노먼 포스터, 리처드 로저스, 제임스 스텔링 등 이분들이 설계한 건축물 구조형태를 보면서 정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건축에 대해 저만의 스타일이 생기면서 미국의 현대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의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에는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과 멀어지게 되고, 그 훌륭한 건축물들

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제 모습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광주건축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청년건축사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광주지역 70년생 이후 건축사들의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홀수달마다 모임을 개최하고 지금도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30여명의 건축사들이 활동하며, 그 중 15명~20명의 젊은 건축사들은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라는 테두리 안에 젊은 건축사들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협회에서 낮에 하는 행사에 참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회장인 이감 건축사사무소 박진호 건축사와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꾸준함을 갖고 더 많은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광주건축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처음 이 질문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일상적인 간담회에는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낮에 하는 간담회보다는 젊은 건축사들의 기호에 맞춰 일과시간 이후, 식당 같은 곳에서 간담회 개최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건축사회가 주도하는 간담회가 아닌, 그들이 주도하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막상 총회나 월례회의 등 큰 모임을 통해서는 선후배들끼리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구나 골프 등 여러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하다보면 선후배들 간의 간극이 조금은 좁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호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후배는 선배를 공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아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광주 / 미르 건축사사무소 김도석 건축사



지난 3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미르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김도석 건축사 작품>

강진군 수산물 판매센터 복지회관 신축공사



남양 휴튼유치원 신축공사



목포 하당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주)GLS 건물 신축공사



영암 월지사 건립공사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지역 담당 부회장으로 추대

지난 1월 중순경 총회에서... 감사에는 광주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창울 건축사가



손승광 교수

이창울 건축사

지난 1월 17일 (사)한국 건축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강원대 박경립 교수가 2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우리 지역의 동신대학교 손승광 교수가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그리고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의 이창울 건축사는 부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감사로 추대됐다.

2013년에 창립된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입법추진단이 모체가 되었고,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한 이상정 위원장이 초대회장으로서 기틀을 다졌다.

건축정책학회의 활동방향은 건축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정책적인 틀과 지원방안에 대한 건축계의 힘든 부분을 살피고, 정부와 국회를 파트너로 하여 정책제안과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인들의 활동 영역을 굳건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한국건축정책학회는 건축인들이 가슴 펴고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요구를 서슴없이 요청하고 있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국제회의에서 한국대표로 '한옥' 발표

지난 3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무크관계자회의에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가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무크관계자회의(The 1st Asia-Pacific MOOCs Stakeholders Summit)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한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와 태평양연안국가의 무크(MOOC)협회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무크관계자회의는 'MOOC(Masive Open Online Course)의 활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양일간 진행됐다.

여기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태평양 연안국가, 유네스코 등 세계 각국의 대표가 각국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했는데 남해경 교수는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 한옥의 미학,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옥교육과 한옥특성화교육, 앞으로의 한옥발전방향, 한국문화로써 한옥의 해외홍보에 관하여 발표하여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한옥교육의 특성화와 평생교육으로써의 한옥교육,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계, 앞으로의 전북대학교 한옥교육 방향, 산업화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특히 공동주최측인 유네스코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온라인교육으로 촬영하여 세계에 보급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남해경 교수의 한옥교육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다.

이번 회의에 주최측인 태국의 교육부장관과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유네스코측에서도 관계 대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남해경 교수는 소감을 통하여 "세계의 교육과 문화를 논하는 이번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한옥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옥을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홍보물을 제작하여,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미국에서 한옥에 대한 우수성 알리는 전시회 가져
남해경 교수 단장으로 하여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뉴욕 등지에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에서 한옥전시회를 개최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초청으로 1년간을 준비하여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내용은 화암사 극락전을 1/5모형으로 만들고 그동안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수업시간에 만들었던 공포 모형, 한옥 및 한국 문화와 관련한 패널, 사진, 한옥 관련한 도구, 그리고 최근에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든 한옥레고 키트를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 오픈행사를 하는 날 학장을 비롯하여 학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들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1주일 기간에도 와서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전시장의 큐레이터는 '이 학교 전시실이 생긴 10년 이래 가장 훌륭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인터뷰할 정도였다.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관람했는데 한결같이 이들은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맞춤과 이음으로 집 한 채를 만드는 한옥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해하고 감탄했다. 오픈 세리머니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과 태권도시범을 보여 많은 미국 현지인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전시 후에는 미국 조지아주립대 건축과 학생들과 "최근 미국 건축계의 동향"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에서는 미국의 중심부인 타임스퀘어 광장과 센트럴파크에서 한옥과 한국음악공연,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어 지나가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팀의 단장을 맡은 본 대학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는 "우리의 한옥건축문화를 미국에 알려 기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시계획을 좀 더 확장하여 여러 곳에서 한옥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옥을 수출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우리의 한옥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다른 한스타일분야처럼 활성화 하겠다"고 전했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선대학교 입석홀에서... 학술발표 등 진행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홍식/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오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조선대학교 입석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 등록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전 10시 본식을 진행하며, 학술발표회와 함께 본회의와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심도 있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경제활성화 공익 캠페인)

설계에서부터 지역가전제품 사양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우리 지역 대기업의 생산라인 이전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 가전기업의 자생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제품군 : 오븐, 주방TV폰, 렌지후드, 가스쿡탑, 홈네트워크, 자동점등기, 빨래건조기, 일괄소등·가스차단기, TV 등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가 함께합니다.

사랑에서 _ 스물여덟 번째

동백꽃

여기저기 꽃소식이 전해 오는 3월이다. 근무하는 스튜디오 앞엔 내가 좋아하는 세 그루 나무가 있다. 백목련, 홍매화, 그리고 동백이다. 나름 의미가 있어서 작업공간을 열면서부터 17년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백목련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백목련 심기운동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 건축가가 이렇게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 할 수 있음에 감동을 받아 좋아하게 되었다. 홍매화는 추운 날씨의 고통 속에서도 당당히 버티고 살아 있다가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해주는 놈이라 좋아 한다. 동백꽃도 혹독한 겨울 날씨와 눈 속에서도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가, 봄에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모습들이 닳고 싶어서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고 있다.

그중 더 애정이 가는 것은 동백이다. 동백은 두 번 꽃을 핀다. 살아서는 하늘에서 꽃을 피고, 죽어서는 땅에 떨어져 다시 꽃을 핀다. 얼마나 멋진 놈인가? 그러니 부럽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시인들이 동백꽃을 노래했다. 그중 문정희 시인의 "동백꽃"이라는 시를 좋아한다.

(...)

가장 눈부신 순간에 / 스스로 목을 꺾는 동백꽃을 보라 // 지상의 어떤 꽃도 / 그의 아름다움 속에는 / 저토록 분명한 순간의 소멸을 / 함께 꽃피우지는 않았다 // 모든 언어를 버리고 / 오직 붉은 감탄사 하나로 / 허공에 한 획을 긋는 단호한 참수

(...)

나무에 붙어서 조금씩 시들어 가거나 땅에 떨어져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정의 순간에 자신을 툭 떨어뜨려 땅에서도 다시 꽃을 피는 그 찬란한 모습이 멋지다.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서 동백꽃이 좋다.

인생의 시간은 리셋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은 리셋이 된다. 그간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리셋하자. 동백꽃처럼 살아서도, 죽은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보자. 살아있는 동안 나름 멋지고 가치 있게 살고, 죽음 후에도 추하지 않고 다시금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한번 과욕을 부려보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지라도, 한번뿐인 인생이기에...

다시 새로운 봄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봄을 맞이할지 모른다. 오늘, 이 순간이 있어 봄을 만끽하고 꽃을 볼 수 있기에 좋다.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정보

□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제안일자 : 2017. 03. 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응래 의원 등 13인)[제안일자 : 2017. 02. 28.]

○ 제안이유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원인과 관련한 정밀조사 결과 건물철거에 필요한 안전설비 미흡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문제가 되었음.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함에 따라 안전심의 등 전문가 사전검증 절차가 부재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영세 비전문업체에 의한 주먹구구식 철거공사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사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정의에 건축물 등이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철거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5호).

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계획대로 철거하는지 감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

다.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하는 경우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철거완료보고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라. 건축물 철거 시 신고사항 및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110조 및 제113조).

□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2인)[제안일자 : 2017. 02. 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음.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이 미흡하고, 현행 제48조의3 역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그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환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전담기자: 객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이종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주)다이나미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아카렘 350,000원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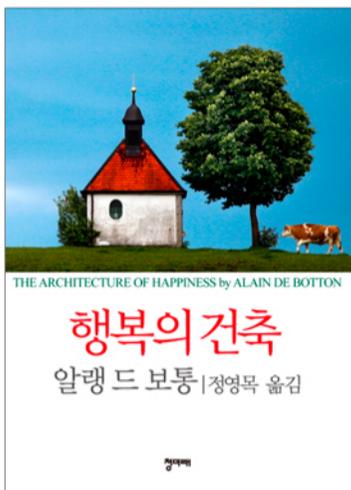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 정영목 옮김 / 청미래 / 2011. 08. 10.

조하니 직장인
광주광역시



“당신은 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묻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축인들에게 특히 추천 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바로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인데요, 당신은 어떠한 꿈을 안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건축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가요? 이 책은 누구나 고민했을 법한,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잊혀져가는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보통은 이 책을 통해 건축의 의미를 짚어 보며 건축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벽지나 가구, 소품 등등)들이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기분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의미를 창조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공감 가는 여러 구절 중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건축이나 장식의 여러 양식은 우리가 그것을 만났던 순간과 배경의 감정적 기념물이 된다’ 라는 구절인데요,

제일 공감했으며 꿈도 많았던 그 시절 미국에서 보았던 애니쉬 카푸어의 ‘클라우드 게이트’를 볼 때면, 6년 전 처음 보았던 그때처럼 고층빌딩들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현란한?) 스카이라인과 맞닿아 있는 구름 한 점 없던 평화로운 파란 하늘,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 속에 있는 꿈 많고 융감했던 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다시 한 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클라우드 게이트가 저의 감정적 기념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 중요성을 떠올리며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행복의 건축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건축주가 아닌 나에게 행복의 건축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사는 느낌

김정운 회사원
경기도 김포시

양념반, 후라이드반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대고민인 ‘짜장이나 짬뽕이나’, ‘양념이나 후라이드나’하며 탄생한 짜짜면과 반반치킨은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크나큰 선물로 불려진다.

요즘 광장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는 좌와 우의 표현방식에서 다양성을 나타냈다고 본다.

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한 2월 말에도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다.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차벽 사이로 서로의 의견을 극명하게 달리 나타내고 있어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보던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어 의견을 나타낸다면 좋을 일이지만, 공산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는 굳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강요나, 생명을 담보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큰 우려가 된다.

표현의 방식에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되, 가급적 협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유도하도록 사회협약체 구성이 절실해 보인다.

절묘한 반반음식의 탄생처럼 서로 극에 치달아 있는 우리 사회의 절묘한 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듯싶다. 또한 분리되어 있는 사회를 적절히 통합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려본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지 병

겉에서부터 약아온 병이라도 있는 건지
만 산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토해낸 알이라도 있는 건지

인간이 독해서인지
때이 검손해서인지
인간이 다니는 길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주인도 없이 잉태된 짐승마냥
거미줄에 얽힌 벌레 마냥
무슨 할 말이 그럭저럭도 많은지
멍하니 세상속을 돌아다 보고있다

기관원에게 쫓기는 사람 마냥
고개도 돌지 못한 채
홀쭉거리며
인간들의 냄새를 돌아다 볼 뿐이다

저녁술이 아직 도달 깨어
벌 알건 알콜로
나른한 아침이 시작되고
새벽 산길도 열린다

해마다 같이 가는 골짜기의
같이를 재가며
오늘도
산길에 풀이 나지 않은 이유를 모르고
하루가 저문다.

내손 안의 스마트감리앱

국내최초 국내유일 공사감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키엠

201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반영!!

PDF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

facebook 아키엠

youtube 아키엠